

인도 : 이영제 목사

묵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개	회	송	245장	다	같	이	
교	독	문	36번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53장	다	같	이		
기	도	이	창	결	집	사		
성	경	봉	독	요10:11-18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영제목사				
			(16.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찬	송	500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	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송	영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흠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영, 감독, 양의 문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 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앙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 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앙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앙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인도차이나선교대회(11월 24-27일 캄보디아 씬리암)에 특강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교회 소식

- ♥ 주앙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 피아노 반주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다음주 2부 예배에는 영세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히브리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10:32-39 성도에게 요구되는 인내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본문의 수신자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다. 고난이 닥쳐올 때 싸웠던 일을 “ 참은 것” (취페메이나테) “ 견딘것, 인내한것” 을 (아나밈네스케스 데) “ 기억하라” 고 권면한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 혹” 은 (투토) “ 그것이” 는 32절의 고난을 받을 때 “ 구경거리” (데아트리지메노이)는 공개적인 박해와 구경을 말하는 것으로 수신자들은 과거에 공개적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를 ‘ 너희가 갇혀있는 나를 동정하고’ 의 독법으로 본다면 본서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은 (무) “ 나의” 가 어떤 사본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신학자들은 “ 갇힌 자들을” 이 옳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이라 “ 산업” “ 소유권, 재산” 이 (크라잇톤아) “ 더 좋은” 것으로 (취파르크신톤) “ 생기다, 존재하다” 에 “ 영구한” (메노우시안)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어 새로 주시는 것이 더 좋고 영구한 것으로 말한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 담대함” (팔흐레시안) “ 솔직함, 확신” 으로 ‘ 숨김없이 말하는 것’ 에서 유래된 단어로 행4:13에서 “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 과 같은 용어이다. 이 단어는 ‘ 담대함’ 으로(히3:6, 엡3:12, 요일3:21 요일4:17) ‘ 담력을’ (딤편3:13, 몬1:8, 히 10:19)로 사용되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 필요함” 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크레이안) “ 요구, 요청” 하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 약속” (에팡겔리안)은 가깝게는 행1:4 “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는 ‘ 성령’ 을 말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딤편1:1 “ 생명의 약속” 으로 ‘ 영생’ 을 보장한 것이다.

37-38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본 절은 함2:3, 4의 인용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롬1:17, 갈3:11). “살리라” (제세타이) “ 생명” 은 미래형으로 의인에 대한 생명이 미래에 보장하고 계신 것이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본 장에서 변절에 대한 경고는 저자의 가정적인 경우만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침륜” (아플레이안) “ 멸망” 당할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수신되고 있다.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담임
컴퓨터선교회 대표

WCC 첫 대회 장례식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세계교회협의회) 첫 번째 대회 개최식 순서에 장례식 순서가 있었습니다.

관을 하나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국 대표들은 관속에 누가 있는가 드러다 보았습니다.

관은 비어있었고 거동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얼굴이 관속에 비치었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자가 말하기를 “나의 증오심, 나의 적개심, 나의 욕심, 나의 주장을 잠시지냅시다. 그때 화해라 일치가 성립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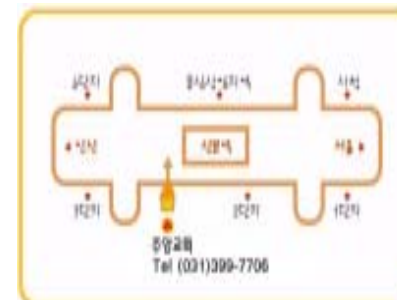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앙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5. 나(양)의 문이신 예수님) / 본문 : 요 10:1-10

문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들여보낼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문제도 문, 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정답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집에 달린 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방이나 지역을 출입하는 문도 있고, 나라를 드나드는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환영받고 보호받고 대접받는다는 점입니다. 밀입국자들이나 밀수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문을 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문으로 드나들다 결국은 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나드는 문이 어느 문이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들어갈 문도 결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 기도하는 집에 열심히 출입한 사람은 천국 문이요, 세상의 넓은 유희와 향락의 문으로만 출입한 사람은 지옥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이나 소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양의 문 곁에는 베테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자기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B.C.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재건축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양의 문입니다(느3:1).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성문들을 수축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적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층이 있고 평민이나 병자, 가난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려면 성전세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으나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짐승이 드나들던 양의 문에 모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을 약탈하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양의 문'은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문으로 들어가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2003.10.12) 설교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church/> Email : webmaster@kcm.co.kr